

傷寒論 中 嘔吐와 關聯된 條文에 對한 研究

朴鍾五 · 金聖勳*

I. 緒 論

《傷寒論》은 東漢의 張仲景의 著作으로, 原名은 《傷寒雜病論》이며 B.C 219년경에 張仲景이 著述한 臨床醫書로서 陰陽說과 疾病의 發展過程에 바탕한 六經病理說을 提唱하였다¹⁾. 張仲景은 內經과 難經의 基礎위에서 漢代以前的 醫學經驗과 自기의 臨床經驗을 總括하여 辨證論治의 完備된 體系를 完成하였으며, 그의 著書인 傷寒雜病論은 理法·方藥을 具備한 臨床醫學의 原典이 되었다²⁾.

그동안 國內에서도 傷寒論에 對한 많은 研究가 이루어져 왔다. 文獻的 研究로는 宋³⁾은 少陽病의 病理에 關한 文獻的 考察을, 金⁴⁾은 傷寒·溫病論爭의 概括的 研究를, 金等⁵⁾은 傷寒柴胡湯類의 病理·辨證·臨床 및 實驗에 對한 文獻的 考察을, 安等⁶⁾은 六經病의 傳變에 關한 文獻的 研究를, 文等⁷⁾은 傷寒論 三陰證의 治療機轉에 關한 文獻的 考察을, 洪等⁸⁾은 黃帝內經과 仲景傷寒論의 醫學思想의 關聯性에 關한 研究를, 崔⁹⁾는 傷寒論 概論에 關한 小考를, 崔¹⁰⁾는 傷寒論 倒裝句法에 關한 文獻的 研究를, 崔¹¹⁾는 蓄血證과 蓄水證의 病理에 關한 文獻的 研究를, 鄭¹²⁾은 傷寒論의 六經概念에 對한 研究를 하였다. 實驗的 및 臨床的 研究에서는, 金等¹³⁾은 加減柴胡龍骨牡蠣湯이 高脂血症에 미치는 影響을, 李等¹⁴⁾은 桂枝加龍骨牡蠣湯의 效能에 關한 實驗的 研究를, 金等¹⁵⁾은 小柴胡湯에 關한 實驗的 및 臨床的 研究를, 李等¹⁶⁾은 苓桂朮甘湯이 虛血性 心疾患에 미치는 影響, 小陷胸湯 및 加味小陷胸湯의 高脂血症에 對한 實驗的 研究를, 鄭¹⁷⁾은 抵當湯이 血栓症에 미치는 實驗的 研究를, 文¹⁸⁾은 大柴胡湯 및 그 構成藥物이 MOUSE의 膽石症模型에 미치는 影響을 研究하였다.

지금까지의 論文의 現況과 特徵을 살펴보면, 主로 文獻的 研究와 實驗的, 臨床的 研究로 나누어지는데, 方證을 重要視하는 傷寒論의 立場에서 본다면 重要한 湯證에 對한 研究는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中에서도 鄭이 그의 論文¹⁹⁾에서 太陽,

2. 文濬典 外, 「東醫病理學」 高文社 서울 P.371.
3. 宋孝貞, 「少陽病의 病理에 關한 文獻的 考察」 《大韓韓醫學會誌》 9卷 1號 1988.
4. 金琦顯 外, 「傷寒·溫病論爭의 概括的 研究」 《大韓韓醫學會誌》 11卷 1號, 1990.
5. 金聖勳 外, 「傷寒柴胡湯類의 病理·辨證·臨床 및 實驗에 對한 文獻的 考察」 《大韓韓醫學會誌》 15 권 2호, 1994
6. 安圭錫 外, 「六經病의 傳變에 關한 文獻的 研究」 《慶熙韓醫大論文集》 15卷 1994.
7. 文濬典 外, 「傷寒論 三陰證의 治療機轉에 關한 文獻的 考察」 《慶熙韓醫大論文集》 1卷 1978
8. 洪元植 外, 「黃帝內經과 仲景傷寒論의 醫學思想의 關聯性에 關한 研究」 《慶熙韓醫大論文集》 10卷 1987.
9. 최준배, 「傷寒論 概論에 關한 小考」 《東醫病理學會誌》 9卷 2號, 1995.
10. 崔達永, 「傷寒論 倒裝句法에 關한 文獻的 研究」, 《東醫病理學會誌》 6卷, 1991.
11. 崔昇勳 外, 「蓄血證과 蓄水證의 病理에 關한 文獻的 研究」, 《東醫病理學會誌》 9卷, 1994.
12. 鄭遇悅 外, 「傷寒論의 六經概念에 對한 研究」, 《東醫病理學會誌》 5卷, 1990.
13. 金聖勳 外, 「加減柴胡龍骨牡蠣湯이 高脂血症에 미치는 影響」, 《大韓韓醫學會誌》 14卷 2, 1993.
14. 李京燮 外, 「桂枝加龍骨牡蠣湯의 效能에 關한 實驗的 研究」, 《慶熙韓醫大論文集》 17卷 2號, 1994.
15. 金乘雲 外, 「小柴胡湯에 關한 實驗的 및 臨床的 研究」, 《慶熙醫學》 6卷 1號, 1990.
16. 李京燮 外, 「小陷胸湯 및 加味小陷胸湯의 高脂血症에 對한 實驗的 研究」, 《慶熙醫學》 9卷 1號, 1993. ; 李京燮 外, 「苓桂朮甘湯이 虛血性 心疾患에 미치는 影響」, 《慶熙醫學》 7卷 4號, 1991.
17. 鄭遇悅, 「抵當湯이 血栓症에 미치는 實驗的 研究」, 《東醫病理學會誌》 8卷, 1993.
18. 文濬典 外, 「大柴胡湯 및 그 構成藥物이 MOUSE의 膽石症模型에 미치는 影響」, 《東醫病理學會誌》 第1輯, 1984.
19. 鄭遇悅, 「嘔吐의 病因病理에 對한 韓醫學的 考察」, 《東醫病理學會誌》, 제1집 1984.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病理學教室

1. 金聖勳 外, 「東醫病理學」 한림원 1994. P.5-6.

陽明, 少陽에서 發生되는 嘔吐를 熱性嘔吐, 三陰인 太陰, 少陰, 厥陰病에서 發生되는 嘔吐를 寒性嘔吐라 하여 寒熱로 區分하고, 嘔吐의 處方이 47個 였으며 그中 少陽病이 23個로 제일 많았다고 報告한 것은 注目할 만 한다. 그러나 이는 傷寒論의 本文에 基礎하기 보다는 臨床의 · 主觀인 것이어서 未治한 點이 있다.

傷寒論에서 嘔吐는 汗·吐·下 三法과 關係되는 重要한 症狀에 屬한다. 嘔吐는 內經에서 “嘔吐” “嘔逆” 등으로 收錄된 이래 金匱要略에서는 嘔吐·噦로 區分되었고, 傷寒論以後로 嘔吐와 關聯된 多樣한 症狀들이 기재되었다. 嘔吐의 原因에 對해서는 內經²⁰⁾에서 “寒氣客于腸胃 厥逆上出 故痛而嘔也”, “諸嘔吐酸…皆屬於熱”, “食則嘔者 物盛滿而上溢 故嘔也”라 하여 寒熱食으로 因해 胃氣가 上逆하여 發生한다고 보았으며, 金元時代의 劉河間²¹⁾은 火氣炎上, 張子和²²⁾는 火乘胃脘이, 李東垣²³⁾은 脾胃虛弱이, 朱丹溪²⁴⁾는 胃中痰火가, 明의 張介賓²⁵⁾은 脾胃虛寒이 嘔吐의 主要原因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後世로 갈수록 많은 醫家들이 嘔吐의 原因을 內傷에서 많이 다루었는데, 이는 相對的으로 傷寒論에서의 方證으로 提示된 嘔吐에 對한 專門의 이고, 仔細한 研究가 없이 傷寒論에서 나타나는 嘔吐의 境遇 單純히 風寒嘔吐나 外感嘔吐로 간주하는 傾向이 되었다. 그러나 張仲景은 嘔吐를 臨床的으로 仔細히 觀察하여 그 種類과 狀態에 따라서 乾嘔, 嘔逆, 嘔吐, 吐逆, 吐涎沫, 愠愠欲吐, 欲嘔 등으로 나누었으며, 또 韓醫學의 特徵인 辨證論治의 기틀을 마련한 傷寒論에서 嘔吐의 原因과 病症을 多樣한 症型으로 提示하였다.²⁶⁾

이에 著者는 그동안 不足했던 傷寒論의 湯證에 對한 研究를 通해서 湯證을 具體的으로 整理해 보고자 하였다. 特別히 嘔吐는 傷寒論에서 單純히 症狀뿐 아니라, 六經傳變의 豫候, 內臟機能의 盛衰, 陰陽·內外·上下不和에 이르기까지 多樣한 境遇의 病症을 說明하는데 使用되고 있는 重要한 症狀으로, 嘔吐症에 對하여 各各의 症型, 原因, 病機, 處方, 使用된 本草에 이르기까지 調査하고, 整理한 結果 몇가지 結論을 얻었기에 이에 報告하는 바이다.

II. 本 論

1. 研究方法

<1>湯證을 六經으로 分類하는 境遇에는 傷寒論 原文에 따라서 나누었으며, 使用된 處方은 條文에서 言及한 境遇 以外의 것은 비록 病證이 맞다하여도 取扱하지 않았다.

<2>嘔吐症에 포함되는 症狀을 嘔, 乾嘔, 嘔逆, 欲嘔, 喜嘔, 吐, 吐逆, 欲吐, 吐蚘, 吐膿血, 嘔吐, 欲嘔吐, 乾噦, 噦氣, 噦, 唾膿血까지 包含하였으며, 參考로 不嘔에 對해서도 調査하였다.

<3>各家注는 主로 成無己, 尤在經, 醫宗金鑑, 喻嘉言, 方中行, 柯韻伯等의 注를 取하였다.

<4>嘔吐의 原因別 區別은 各家의 서로 다른 解說을 中心的으로 原因에 包含시켰다.

<5>嘔吐症에 使用된 處方의 病因病機는 主로 傷寒論湯證論治²⁷⁾에 基準하였다.

<6>處方에 使用된 本草의 區分은 便宜上 效能別로 區分하였으며 本草學²⁸⁾에 基準하였다.

2. 關聯된 傷寒論 條文과 重要條文의 各家注.

2-1. 太陽病

① 太陽病 上篇

【3條】

「太陽病, 或已發熱, 或未發熱, 必惡寒, 體痛嘔逆, 脈陰陽俱緊者, 名爲傷寒。」

成無己-“…氣病者는 身麻하고 血病者는 身痛한다. 風邪는 氣緩케하고 寒邪는 氣逆케 한다. 그러므로 體痛嘔逆한 것은 營分 中에 寒邪가 入한 것이다.”²⁹⁾

方中行-“…體痛한 것은 寒主堅癢으로 傷營하면 營實而強하고 衛虛而弱하기 때문이며, 營強하면 血澁하

21. 劉河間 劉河間傷寒三六書 서울 成輔社 1976. PP.60-63.

22. 張子和 儒門事親 서울 古典韓醫學研究會 1975. PP.29-30.

23. 正和奉勅 聖濟總錄 서울 翰成社 1977. pp.202-214.

24. 朱丹溪, 丹溪心法, 臺北, 五州出版社, PP.345-349, 798-801.

25)張介賓 景岳全書 서울 杏林書院 1975. PP.559-563.

26. 安圭錫 外, 「東醫病理學會誌」 8卷 1993. pp.259-272.

27. 李文瑞 外, 傷寒論湯證論治, 人民軍醫出版社, 1989.

28. 本草學, 永林社, 1991.

29. 註解傷寒論 一中社 pp.155.

20. 장마합주, 黃帝內經, 臺北, 臺聯國風出版社, 1977년. pp.274, 340, 656

고, 衛弱하면 氣滯하므로 體痛한 것이다. 嘔는 吐이고, 逆은 一般的으로 말하는 惡心이다. 胃口가 畏寒하므로 湧寒하는 것이다...”³⁰⁾

柯韻伯-“...中風에서는 風을 만나면 惡寒하지만, 傷寒은 이와 關係없이 惡寒한다. 寒邪가 外束하므로 體痛하며, 寒邪가 外侵하므로 嘔逆한 것이다...”³¹⁾

尤在經-“...體痛嘔逆하는 것은 寒邪가 傷形하므로 痛하고, 衛氣가 得寒하므로 上逆한 것이다. ...中濕風濕에도 體痛이 있으며, 中風, 中喝에도 惡寒이 있으며, 風邪가 上壅해도 乾嘔를 多作하고, 濕家에 下泄해도 呃逆이 있을 수 있으므로, 傷寒과 中風은 마땅히 脈緊無汗, 身不即熱한 것으로 區別해야 한다...”³²⁾

【4條】

「傷寒一日, 太陽受之, 脈若靜者, 爲不傳; 煩欲吐, 若躁煩, 脈數急者, 爲傳也。」

成無己-“胃經이 邪氣를 받으면 喜吐하고, 寒邪가 傳裏하면 變熱하게 된다. 煩欲吐若躁煩, 脈數急한 것은 太陽寒邪가 變熱하여 陽明으로 入한 것이다.”³³⁾

尤在經-“...邪氣가 微弱하면 正氣를 優亂케 못하므로 그 脈이 多靜하고, 邪氣가 甚하면 正氣와 相爭하므로 脈이 數急하고, 其人이 煩躁하고 欲吐하려는 것이다. 대개 寒邪가 漸次로 甚해지면 變하여 成熟하는데, 胃氣가 惡邪하므로, 卽 上逆하여 欲吐하는 것이다.”³⁴⁾

喻嘉言-“...煩欲吐는 外邪가 內傳한 것이고, 煩躁脈數은 寒邪가 變熱한 것으로 반드시 傳經하게 된다.”³⁵⁾

【12條】

「太陽中風, 陽浮而陰弱, 陽浮者, 熱自發, 陰弱者, 汗自出; 奮奮惡寒, 淅淅惡風, 翕翕發熱, 鼻鳴乾嘔者, 桂枝湯主之。」

成無己-“...風邪가 衛分에 并入하면 衛實營虛하게 되므로 發熱汗自出한다. ...鼻鳴乾嘔한 것은 風邪가 壅竭되어 上逆한 것이다...”³⁶⁾

尤在經-“...太陽中風者는 陽分이 風氣를 받은 것이지만 아직 陰分에는 미치지 않은 것이다. ...鼻鳴乾嘔는 風氣가 上壅된 것 뿐 아니라, 또한 邪氣가 暴加하여 裏氣가 上爭한 象이다...”³⁷⁾

醫宗金鑑-“...皮膚는 肺와 內合하므로, 皮毛가 不固하면 風邪가 肺에 侵入하여 氣壅하므로 鼻鳴하는 것이며, 胸中은 陽氣의 本으로 衛陽이 風邪의 干涉을 받으면 數布되지 못하여 氣上逆하므로 乾嘔가 되는

것이다...”³⁸⁾

【17條】

「若酒客病, 不可與桂枝湯, 得之則嘔, 以酒家不喜甘故也。」

喻嘉言-“酒客은 平素에 濕熱이 胸中에 相搏한데, 外邪를 끼면 반드시 滿逆함이 增加되므로, 이른바 辛甘의 治法은 이런 部類에 맞지 않다...”³⁹⁾

柯韻伯-“平素에 好酒하면 濕熱이 在中하므로 甘味를 얻으면 반드시 嘔하게 된다. ...仲景이 말하지는 않았지만 葛根黃芩黃連으로서 解肌之法을 써야함을 알아야 한다.”⁴⁰⁾

【19條】

「凡服桂枝湯吐者, 其後必吐膿血也。」

方中行-“桂枝는 辛甘大熱한데, 萬若 胃家에 濕熱이 本來 甚했던 사람이 다시 桂枝의 大熱을 얻으면 兩熱이 中宮에서 相搏하고, 相搏하면 必傷하고, 또한 甘味는 사람으로 하여금 中滿壅氣上溢케하므로, 胃가 司納하지 못해도리어 上湧되어 逆出하는 것이다. ...胃家の 濕熱이 甚한者는 반드시 肺로 傳하고, 肺가 胃의 濕熱을 받으면 外邪와 熱邪가 相搏하여 薰蒸하여 久熱로 化火되므로 膿血이 되는 것이다.”⁴¹⁾

【23條】

「太陽病, 得之八九日, 如瘧狀, 發熱惡寒, 熱多寒少, 其人不嘔, 清便欲自可, 一日二三度發. 脈微緩者, 爲欲愈也....」

成無己-“지금 비록 發熱惡寒하지만 熱多寒少하므로 陽氣進하고 邪氣가 少한것을 알수 있다. 裏不和하면 久利하지만, 지금은 不嘔, 清便欲者可하므로 裏和한것을 알 수 있다...”⁴²⁾

尤在經-“病이 太陽에 있는지 八九日이 되었는데도

30. 欽定四庫全書中 傷寒論條辨 p.27.

31. 傷寒來蘇集,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8, pp8-9.
32. 傷寒貫注集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8, pp3-4.
33. 註解傷寒論 一中社 pp.156.
34. 傷寒貫注集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8, p16.
35. 喻嘉言醫學三書 江西人民出版社 1984, p.53.
36. 註解傷寒論 一中社 pp.161.
37. 傷寒貫注集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8, p4.
38. 醫宗金鑑 訂正中景全書(上) 醫藥衛生出版社, 1978, p11.
39. 喻嘉言醫學三書 江西人民出版社 1984, p.33.
40. 傷寒來蘇集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8, p21.
41. 欽定四庫全書中 傷寒論條辨 p.9.
42. 註解傷寒論 一中社 pp.167-169.

他經에 不傳한것은 本來 邪氣가 微弱했던 것을 알 수 있다. 不嘔, 瀉便欲自可한것으로 裏部가 邪氣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³⁾

【29條】

「傷寒, 脈浮, 自汗出, 小便數, 心煩, 微惡寒, 脚蹶急, 反與桂枝湯攻其表, 此誤也. 得之便厥, 咽中乾, 煩躁吐逆者, 作甘草乾薑湯與之, 以復其陽; 若厥愈足溫者, 更作芍藥甘草湯與之, 其脚即伸;…»

成無己-“脈浮, 自汗出, 小便數하며 惡寒이 있는 者는 陽氣不足이다. 心煩, 脚蹶急者는 陰氣不足이다. 陰陽氣血이 俱虛하면 不可發汗한데 萬若 桂枝湯으로 攻表하면 더욱 陽氣를 傷하게 된다.”⁴⁴⁾

②太陽病 中篇

【33條】

「太陽與 陽明合病, 不下利, 但嘔者, 葛根加半夏湯主之。」

成無己-“邪氣가 外甚하여 陽氣가 裏部를 主하지 못하여 裏氣不和하여 氣下而不上하면 但下利, 不嘔하며, 裏氣上逆하지만 不下하면 但嘔, 不下利하므로 葛根湯으로 散邪하고, 半夏를 加하여 逆氣를 降下한다.”⁴⁵⁾

醫宗金鑑-“太陽陽明合病이란것은 太陽의 發熱惡寒無汗 等과 陽明의 煩熱不得眠 等の 症狀이 同時에 病이 된것으로, 表裏의 氣가 升降失常되었으므로, 下利하지 않으면 반드시 上嘔하게 된다.”⁴⁶⁾

喻嘉言-“風은 陽으로 陽性은 上行하므로 陽明胃中の 水飲과 合하면 上行하고, 寒은 陰으로 陰性은 下行하므로 陽明胃中の 水穀과 合하면 下奔하는것이다.”⁴⁷⁾

【40條】

「傷寒表不解, 心下有水氣, 乾嘔, 發熱而咳, 或渴, 或利, 或噎, 或小便不利, 小腹痛, 或喘者, 小青龍湯主之。」

柯韻伯-“發熱은 表邪가 未解한것이고, 乾嘔하며 咳하는것은 水氣로 病이 된것이다. …心下の 水氣는 五臟을 傷케 하는데, 水氣가 入胃하므로 乾嘔한것이다. …水性은 動하고, 그 變化도 많아 水氣가 下而不上하면 或渴, 或利하며, 上而不下하면 或噎, 或喘하며, 留滯하고 不行하면 小便不利되고 因하여 小腹痛하게 된다.”⁴⁸⁾

【61條】

「下之後, 復發汗, 晝日煩躁不得眠, 夜而安靜, 不嘔不渴, 無表證, 脈沈微, 身無大熱者, 乾薑附子湯主之。」

成無己-“下法을 使用하면 裏虛하고, 發汗하면 表虛하게 되므로, 下法을 使用하고 다시 汗法을 使用하면 表裏가 俱虛하게 된다. …不嘔不渴한것은 裏部에 無熱한것이요, 身無大熱한것은 表에 無熱한것이다.”⁴⁹⁾

柯韻伯-“…晝日不得眠함은 虛邪가 홀로 陽分에 根據하기 때문이고, 夜而安靜함은 陰分이 虛하지 않은 것이다. 不嘔不渴은 裏熱이 없는것이고, …脈沈微한것은 純陰無陽이된것이고, 身無大熱함은 表陽이 將次除去되려는것이다.”⁵⁰⁾

醫宗金鑑-“…不嘔不渴은 內部에 陽證이 없는것이요, 無表證하고 身無大熱, 脈沈微한것은 外部에도 陽證이 없는것이다.”⁵¹⁾

【74條】

「中風發熱, 六七日不解而煩, 有表裏證, 渴欲飲水, 水入則吐者, 名爲水逆, 五苓散主之。」

柯韻伯-“邪水가 內部에서 凝滯되고, 水飲이 外에서 拒絕되어 이미 玄府에 外輸되지 못하고 또 口舌로 上輸되지도 못하고, 膀胱으로 下輸되지도 못하므로 水逆이 되는것이다.”⁵²⁾

【76條】

「發汗後, 水藥不得入口爲逆. 若更發汗, 必吐下不止. 發汗吐下後, 虛煩不得眠, 若劇者, 必反覆顛倒, 心中懊憹, 梔子豉湯主之. 若少氣者, 梔子甘草豉湯主之. 若嘔者, 梔子生薑豉湯主之。」

成無己-“發汗吐下 後에 邪熱이 胸中에 客한것을 虛煩이라 한다. …嘔者는 熱煩하여 氣逆한것이다. …嘔하는것은 氣가 熱搏된것으로 逆而不散者는 辛味로 散해야 한다.”⁵³⁾

44. 註解傷寒論 一中社 pp.172-173.

45. 註解傷寒論 一中社 pp.180-181.

46. 醫宗金鑑 訂正中景全書(上) 醫藥衛生出版社, 1978, p281.

47. 喻嘉言醫學三書 江西人民出版社 1984, p.132.

48. 傷寒來蘇集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8, p52.

49. 註解傷寒論 一中社 pp.198-199.

50. 傷寒來蘇集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8, p164.

51. 醫宗金鑑 訂正中景全書(上) 醫藥衛生出版社, 1978, p113.

52. 傷寒來蘇集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8, p54.

53. 註解傷寒論 一中社 pp.210-212.

43. 傷寒貫注集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8, p20.

柯韻伯-“重陽之人이 大發汗하면 有升無降하게되므로 水藥이 拒隔되어 不得入하게 된것이다. 만약 이를 中風의 乾嘔나, 傷寒의 嘔逆으로 알고 다시 發汗한다면 吐가 不止한데 이는胃氣가 大傷하였기 때문이다.”⁵⁴⁾

醫宗金鑑-“...懊懣者는 心中에 欲吐하나 不得吐하는 것으로 煩憂하여 不寧한것을 나타낸다....”⁵⁵⁾

陳修園-“本證은 五苓散證과 비슷하지만 混沌되서는안된다. ...只今은 大汗으로 胃陽이 傷하여로 納入할수 없어서 逆이된것이다. 만약 이를 모르고 다시 發汗한다면 胃陽이 虛敗하여 中氣不守, 上下俱脫하여 吐下不止하게 되는것이니, 五苓散證과는 다르다.”⁵⁶⁾

【89條】

「病人有寒, 復發汗, 胃中冷, 必吐蚘.」

張隱庵-“病人이 有寒한것은 胃氣가 虛한것인데, 다시 發汗하면 中焦의 氣가 더욱 虛해지므로 胃中冷하여 반드시 吐蚘하게 되는것이다.”⁵⁷⁾

【96條】

「傷寒五六日, 中風, 往來寒熱, 胸脇苦滿, 嘔嘔不欲飲食, 心煩喜嘔, 或胸中煩而不嘔, 或渴, 或腹中痛, 或脇下痞硬, 或心下悸, 小便不利, 或不渴, 身有微熱, 或咳者, 小柴胡湯主之.」

成無己-“...이는邪氣가 表裏之間에 있는것으로 이른바 半表半裏의 證이다....內經에 ‘陽入之陰則靜’이라 함같이 默默한것은 邪氣가 將次 表에서 裏로 入하려는것이고, 邪氣가 在表하면 能食하고 在裏하면 不能食하는데 不欲食 한것은 邪氣가 半表半裏間에 있는것이고, 邪氣가 在表하면 不煩不嘔하고 在裏하면 煩滿而嘔하는데 心煩喜嘔한것은 邪氣가 在表하지만 將次 傳裏하려는것이다....”⁵⁸⁾

柯韻伯-“往來寒熱은 外部에서 病情이 나타나는것이고, 苦, 喜, 不欲 등은 病情을 內部에서 얻은 것임을 나타낸다. 喜, 苦, 欲 등의 글자를 보건데 이는眞嘔, 眞滿하거나 不能飲食한것이 아님을 알수 있다. 往來의 두 글자를 보건데 惡寒이나 發熱이 없는데가 있는것을 알수 있다. 寒熱往來, 胸脇苦滿은 無形의 半表證이고, 心煩喜嘔, 嘔嘔不欲飲食은 無形의 半裏證이다.”⁵⁹⁾

【97條】

「血弱氣盡, 腠理開, 邪氣因入, 與正氣相搏, 結於脇下. 正邪分爭, 往來寒熱, 休作有時, 嘔嘔不欲飲食, 臟

腑相連, 其痛必下, 邪高痛下, 故使嘔也, 小柴胡湯主之. 服柴胡湯已, 渴者屬陽明, 以法治之.」

尤在經-“...邪高라는것은 病이 所來하는 곳을, 痛下라는것은 病이 所結하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 病이 上에서 入하고자하나 正氣가 下에서 拒否하므로 반드시 上逆하여 嘔症이 發하는 것이다....”⁶⁰⁾

【98條】

「得病六七日, 脈遲浮弱, 惡風寒, 手足溫. 醫二三下之, 不能食, 而脇下滿痛, 面目及身黃, 頸項強, 小便難者, 與柴胡證, 後必下重. 本渴, 飲水而嘔者, 柴胡不中與也, 食穀者噦.」

成無己-“...本來 飲水하지 않고 嘔症이 있는것은 柴胡證이지만, 飲水하고 嘔症이 있는것은 水停心下한 것이다....”⁶¹⁾

方中行-“...本來 渴한데 飲水하여 嘔症이 發한者는 水逆이다. 柴胡湯이 適當하지 않은데, 이는嘔症이 水域으로 因한것으로 柴胡湯의 或有之症의 嘔症과는 다르기때문이다....”⁶²⁾

【103條】

「太陽病, 過經十餘日, 反二三下之, 後四五日, 柴胡證乃在者, 先與小柴胡. 嘔不止, 心下急, 鬱鬱微煩者, 爲未解也, 與大柴胡湯下之則愈.」

尤在經-“...만약 小柴胡湯을 服用하고, 嘔不止, 心下急, 鬱鬱微煩하는 者는 邪氣가 裏部에서 鬱滯하여 欲出不出, 欲結不結하는 것으로 病이 未解한것이다. 大柴胡湯으로 裏熱을 下行시키면 낫는 것이다.”⁶³⁾

【104條】

「傷寒十三日不解, 胸脇滿而嘔, 日晡所發潮熱, 已而微利. 此本柴胡證, 下之以不得利, 今反利者, 知醫以丸藥下之, 此非其治也. 潮熱者實也, 先宜服小柴胡湯以解

55. 醫宗金鑑 訂正中景全書(上) 醫藥衛生出版社, 1978, pp.76-77.
 56. 傷寒論淺注 福建科學技術出版社, 1991, pp41-42.
 57. 傷寒論集註 新文豐出版公司, 中華民國74年, p.28.
 58. 註解傷寒論 一中社 pp.221-222.
 59. 傷寒來蘇集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8, pp.126-127.
 60. 傷寒貫注集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8, p.126.
 61. 註解傷寒論 一中社 pp.226-227.
 62. 欽定四庫全書中 傷寒論條辨 p.54.
 63. 傷寒貫注集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8, p.132.

54. 傷寒來蘇集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8, pp.102-103.

外, 後以柴胡加芒硝湯主之。」

【110條】

「太陽病二日, 反躁, 凡熨其背, 而大汗出, 大熱入胃, 胃中水竭, 躁煩, 必發譫語, 十餘日振慄自下利者, 此爲欲解也。故其汗從腰以下不得汗, 欲小便不得, 反嘔, 欲失溲, 足下惡風, 大便硬, 小便當數, 而反不數及不多, 大便已, 頭卓然而痛, 其人足心必熱, 穀氣下流故也。」

成無己-“……萬若 腰以下가 不得한것은 津液이 下通함을 얻지 못하는 것이므로 欲小便하나 不得하고, 熱氣가 上逆하여 도리어嘔症이 發하는 것이다.”⁶⁴⁾

【122條】

「病人脈數, 數爲熱, 當消穀引食, 而反吐者, 此以發汗, 令陽氣微, 膈氣虛, 脈乃數也。數爲客熱, 不能消穀, 以胃中虛冷, 故吐也。」

尤在經-“脈數은 熱象이지만 消穀하지 못하고 도리어吐하는 것은 浮熱이 在上하고, 虛冷이 在下하기때문이다.”⁶⁵⁾

【123條】

「太陽病, 過經十餘日, 心下溫溫欲吐, 而胸中痛, 大便反溏, 腹微滿, 鬱鬱微煩。先此時自極吐下者, 與調胃承氣湯。若不爾者, 不可與。但欲嘔, 胸中痛, 微溏者, 此非柴胡湯證。以嘔, 故知極吐下也。」

③太陽病 下篇

【140條】

「太陽病, 下之, 其脈促, 不結胸者, 此爲欲解也。脈浮者, 必結胸。脈緊者, 必咽痛。脈弦者, 必兩脇拘急。脈細數者, 頭痛未止。脈沈緊者, 必欲嘔。脈沈滑者, 協熱利。脈浮滑者, 必下血」

尤在經-“……脈沈은 在裏함을, 緊은 寒脈을 나타내는데 寒邪가 入裏하려하나 正氣가 不容하므로 內에서 格拒어欲嘔하려는 것이다.”⁶⁶⁾

【146條】

「傷寒六七日, 發熱微惡寒, 支節煩疼, 微嘔, 心下支結, 外證未去者, 柴胡桂枝湯主之。」

【147條】

「傷寒五六日, 已發汗而復下之, 胸脇滿微結。小便不利, 渴而不嘔。但頭汗出, 往來寒熱, 心煩者, 此爲未解也, 柴胡桂枝乾薑湯主之。」

成無己-“……대개 熱이 津液을 消耗케한 것이라면 小便不利하면서 渴症이 있을 때에 반드시嘔症이 있게 된다. 그러나 小便不利하고 渴症이 있으면서 不嘔

한 것은 裏熱이 없음을 알수 있다.”⁶⁷⁾

【149條】

「傷寒五六日, 嘔而發熱者, 柴胡湯證具, 而以他藥下之, 柴胡證仍在者, 復與柴胡湯……」

【152條】

「太陽中風, 下利嘔逆, 表解者乃可攻之。其人皦皦汗出, 發作有時, 頭痛, 心下痞硬滿, 引脇下痛, 乾嘔短氣, 汗出不惡寒者, 此表解裏未和也, 十棗湯主之。」

成無己-“下利嘔逆은 裏部가 邪氣를 받은 것이다.……頭痛, 心下痞硬滿, 引脇下痛, 乾嘔短氣한 것은 邪熱이 內鬱하고, 다시伏飲이 있는 것으로 裏未和한 것이다.”⁶⁸⁾

尤在經-“……下利嘔逆은 飲邪가 上攻하고 다시下注한 것이다. ……心下痞硬滿, 引脇下痛, 乾嘔短氣한 것은 裏未和한 것이다. 비록 頭痛이 있어도 發作有時하는 것으로 風邪가 在經한 것이 아니라 飲氣가 上攻한 것임을 알수 있다. 그러므로 十棗湯으로 下氣逐飲케한 것이다.”⁶⁹⁾

【157條】

「傷寒, 汗出解之後, 胃中不和, 心下痞硬, 乾噎食臭, 脇下有水氣, 腹中雷鳴下利者, 生薑瀉心湯主之。」

尤在經-“汗解한 後에, 胃中이 不和하면 眞氣를 運行할 수 없으므로 아울러 飲食을 消化할 수 없게되어 心中이 痞硬하고 乾噎食臭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金匱>에서 ‘中焦氣가 未和하면 不能消穀하여 사람으로 噎하게 한다.’ 말한 것과 같다.”⁷⁰⁾

【158條】

「傷寒中風, 醫反下之, 其人下利日數十行, 穀不化, 腹中雷鳴, 心下痞硬而滿, 乾嘔心煩不得安。醫見心下痞, 爲病不盡, 復下之, 其痞益甚。此非熱結, 但以胃中虛, 客氣上逆, 故使硬也, 甘草瀉心湯主之。」

【161條】

「傷寒, 發汗, 若吐, 若下, 解後, 心下痞硬, 噎氣不除者, 旋覆代赭湯主之。」

【165條】

「傷寒發熱, 汗出不解, 心中痞硬, 嘔吐而下利者, 大柴胡湯主之。」

【172條】

65. 傷寒貫注集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8, p.37.

66. 傷寒貫注集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8, p.63.

67. 註解傷寒論 一中社 pp.272-273.

68. 註解傷寒論 一中社 pp.277-278.

69. 傷寒貫注集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8, p.26.

70. 傷寒貫注集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8, p.56.

64. 註解傷寒論 一中社 pp.237-238.

「太陽與少陽合病，自下利者，與黃芩湯；若嘔者，黃芩加半夏湯主之。」

成無己-“……太陽少陽合病에 自下利하는 것은 邪氣가 半表半裏 間에 있는 것으로, 汗下法이 맞지 않으므로 黃芩湯으로 半表半裏의 邪氣를 和解한 것이다. 嘔症이 있는 것은 胃氣가 逆上한 것이므로 半夏, 生薑을 加해서 逆氣를 散解한 것이다.”⁷¹⁾

【173條】

「傷寒，胸中有熱，胃中有邪氣，腹中痛，欲嘔吐者，黃連湯主之。」

成無己-“……이는 傷寒의 邪氣가 傳裏하여 下寒上熱이 된 것이다. 胃中에 邪氣가 있으므로 陰陽이 不交되어 陰이 不升하고 下에서 獨治하므로 下寒으로 腹中痛하며, 陽이 不降하고 上에서 獨治하므로 胸中熱하여 欲嘔吐하는 것으로, 黃連湯으로 陰陽을 升降시켜야 한다.”⁷²⁾

醫宗金鑑-“傷寒이 未解한데 欲嘔吐하는 것은 胸中の 熱邪가 上逆하는 것이고, 腹中痛한 것은 胃中の 寒邪가 內攻한 것이다.”⁷³⁾

【174條】

「傷寒八九日，風濕相搏，身體疼痛，不能自轉側，不嘔不渴，脈浮虛而澁者，桂枝附子湯主之。若其人大便秘，小便自利者，去桂加白朮湯主之。」

2-2.陽明病

【185條】

「本太陽初得病時，發其汗，汗先出不徹，因轉屬陽明也。傷寒發熱無汗，嘔不能食，而反汗出 濇濇然者，是轉屬陽明也。」

方中行-“……發熱無汗은 太陽病의 時期임을 말한 것이고, 嘔不能食은 熱邪가 入胃한 것을 말하고, 反汗出한 것은 肌肉이 蓄熱하여서 膚腠가 도리어 開泄된 것이다. 濇濇은 熱하며서 汗出하는 모양이다.”⁷⁴⁾

【194條】

「陽明病，不能食，攻其熱必噦。所以然者，胃中虛冷故也。以其人本虛，攻其熱必噦。」

成無己-“陽明病에 不能食한 것은 本來 胃中이 寒한 것인데, 攻熱하면 다시 胃가 虛해져 虛寒이 相搏하여 噦症이 發하는 것이다.”⁷⁵⁾

【197條】

「陽明病，反無汗，而小便利，二三日嘔而咳，手足厥者，必苦頭痛。若不咳，不嘔，手足不厥者，頭不痛。」

【204條】

「傷寒嘔多，雖有陽明證，不可攻之。」

【226條】

「若胃中虛冷，不能食者，飲水則噦。」

【230條】

「陽明病，脇下硬滿，不大便而嘔，舌上白苔者，可與小柴胡湯。上焦得通，津液得下，胃氣因和，身濇然汗出而解。」

成無己-“陽明病에 腹滿不大便하고, 舌上苔黃한 者는 邪熱이 胃府에 入한 것이므로 攻下할 수 있다. 그러나 萬若 脇下硬滿하고, 不大便하나 嘔症이 있고, 舌上白苔인 者는 邪氣가 胃府에 未入하고 表裏之間에 있는 것이므로 小柴胡湯으로 和解해야 한다. 上焦得通하면 嘔症이 멈추고, 津液得下하면 胃氣因和하고 汗出하며 病이 낮게 된다.”⁷⁶⁾

方中行-“……不大便이 있어도 脇下硬滿이 있고, 嘔症과 舌苔를 보면 少陽症이 많은 것으로 또한 小柴胡湯을 따라야 한다.”⁷⁷⁾

【243條】

「食穀欲嘔，屬陽明也。吳茱萸湯主之。得湯反劇得，屬上焦也。」

醫宗金鑑-“食穀欲嘔는 陽明에 屬한 것인데, 胃가 受納을 主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胃中이 寒하여 納穀할 수 없으므로 欲嘔하는 것이다.”⁷⁸⁾

【244條】

『太陽病，寸緩關浮尺弱，其人發熱汗出，復惡寒，不嘔，但心下痞者，此以醫下之也。如其不下者，病因不惡寒而渴者，此轉屬陽明也。……』

成無己-“……傳經된 邪氣가 入裏하여 裏不和되면 반드시 嘔症이 發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은 不嘔하고 但只 心下痞만 있는 것은 醫師가 下法을 일찍 使用하여 邪氣가 心下에 留 것이다.”⁷⁹⁾

2-3.少陽病

72. 註解傷寒論 一中社 p.294.

73. 醫宗金鑑 訂正中景全書(上) 醫藥衛生出版社, 1978, p.194.

74. 欽定四庫全書中 傷寒論條辨 pp.57-58.

75. 註解傷寒論 一中社 p.311.

76. 註解傷寒論 一中社 p.332.

77. 欽定四庫全書中 傷寒論條辨 pp.68.

78. 醫宗金鑑 訂正中景全書(上) 醫藥衛生出版社, 1978, p. .

79. 註解傷寒論 一中社 pp.340-341.

71. 註解傷寒論 一中社 p.293.

【266條】

「本太陽病不解，轉入少陽者，脇下硬滿，乾嘔不能食，往來寒熱，尚未吐下，脈沈緊者，與小柴胡湯。」

尤在經-“本來 太陽은 脈浮頭痛惡寒의 證이 있는 것인데, 脇下硬滿, 乾嘔不能食, 往來寒熱한 것은 太陽이 不解한데 少陽으로 傳入한 것이다.”⁸⁰⁾

【270條】

「傷寒三日，三陽爲盡，三陰當受邪，其人反能食而不嘔，此爲三陰不受邪也。」

柯韻伯-“三陰이 受邪하면 病이 在裏하므로, 邪氣가 太陰에 入하면 腹滿而吐, 食不下하고, 少陰에 入하면 欲吐不吐하고, 厥陰에 入하면 飢而不欲食, 食即吐蚘할 것이다. 이는 邪氣가 陰經으로부터 臟에 入해도 臟氣가 充實하여 邪氣를 容納하지 않고 腑로 보내는데 腑의 代表가 胃이기 때문이다. …萬若 胃陽이 有餘하다면 能食하고 不嘔하게 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 三陰이 邪氣를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⁸¹⁾

2-4. 太陰病

【273條】

「太陰之爲病，腹滿而吐，食不下，自利益甚，時腹自痛，若下之，必胸下結硬。」

成無己-“太陰의 病은 結局 太陽의 陽邪가 傳裏된 것이다. 太陰의 脈이 胃中에 分布하므로 邪氣가 壅塞하여 腹滿하고, 上不得降하므로 嘔吐, 食不下하며, 下不得升하므로 自利益甚한 것이다.”⁸²⁾

尤在經-“太陰의 脈은 入腹하여 屬脾絡胃하고 上膈挾咽하므로 그 病이 腹瀉, 嘔吐, 自利腹痛 등이 있는 것이다.”⁸³⁾

2-5. 少陰病

【282條】

「少陰病，欲吐不吐，心煩但欲寐，五六日，自利而渴者，屬少陰也，虛故引水自救；若小便色白者，少陰病形悉具，小便白者，以下焦虛有寒，不能制水，故令色白也。」

成無己-“欲吐不吐, 心煩하는 것은 表邪가 傳裏한 것이다. 萬若 腹滿痛이 있다면 이는 太陰에 屬한 것이지만, 只今은 但欲寐하므로 少陰에 屬한 것을 알 수 있다.”⁸⁴⁾

尤在經-“이는 少陰이 寒邪를 感受한 證으로 陽經을 따라서 少陰에 入한 것은 아니다. 寒邪가 처음에 少陰에 入할 때에 邪氣를 받지 않고자 하고, 또 물리치고자 하나 不能하므로 欲吐不吐하는 것이다. 心煩但欲寐는 實은 不能寐한 것이다.”⁸⁵⁾

【283條】

「病人脈陰陽俱緊，反汗出者，亡陽也，此屬少陰，法當咽痛而復吐利。」

成無己-“脈의 陰陽이 俱緊한 것은 少陰傷寒에 屬한 것이므로 마땅한 無汗해야 하는데 도리어 汗出하는 것은 陽虛不固한 것으로 그러므로 亡陽이라한 것이다. 無陽하고 홀로 陰만 있으므로 이는 少陰에 屬한 것이다. 內經에서 ‘少陰의 絡으로 邪客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咽痛하여 納食이 不可하게 한다’고 하였으므로, 少陰寒甚하면 마땅히 咽痛하고 다시 吐利하는 것이다.”⁸⁶⁾

尤在經-“陰陽이 俱緊한 것은 太陰傷寒의 脈으로, 마땅히 無汗해야 하는데, 도리어 汗出이 있는 것은 表虛亡陽된 것으로 病이 太陽에 屬하지 않고 少陰에 屬한 것이다. 少陰의 脈은 上膈循喉嚨하고, 또 少陰의 臟인 腎은 胃之關이 되고, 二陰之司가 되므로 寒邪가 直入하면 經과 臟이 모두 受病하여 咽痛하고 또 吐利하는 것이다.”⁸⁷⁾

【292條】

「少陰病，吐利，手足不逆冷，反發熱者，不死，脈不至者，灸少陰七壯。」

【296條】

「少陰病，吐利躁煩，四逆者死。」

【300條】

「少陰病，脈微細沈，但欲臥，汗出不煩，自欲吐，至五六日自利，不煩躁不得臥寐者死。」

【309條】

「少陰病，吐利，手足厥冷，煩躁欲死者，與茱萸湯主之。」

80. 傷寒貫注集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8, p.128.

81. 傷寒來蘇集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8, p.6.

82. 註解傷寒論 一中社 p.357.

83. 傷寒貫注集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8, pp.135-136.

84. 註解傷寒論 一中社 pp.360-361.

85. 傷寒貫注集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8, p.141.

86. 註解傷寒論 一中社 pp.361.

87. 傷寒貫注集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8, p.141.

成無己-“吐利, 手足厥冷은 陰寒氣가 甚한 것이고, 煩躁欲死한 것은 陽氣가 內爭하는 것이므로 吳茱萸湯으로 助陽散寒한 것이다.”⁸⁸⁾

尤在經-“이는 寒邪가 少陰에 直中하고 다시 陽明을 上攻한 證이다. 吐利厥冷하고, 煩躁欲死하는 것은 陰邪가 極盛하여 陽氣가 不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吳茱萸를 主로하여 溫裏散寒하고, 또 吐利는 中氣가 반드시 傷한 것이므로 人蔘, 大棗로 輔하여 益虛安中케 한 것이다....”⁸⁹⁾

【315條】

「少陰病, 下利, 脈微者, 與白通湯, 利不止, 脈逆無脈, 乾嘔煩者, 白通加豬膽汁湯主之. 服湯脈暴出者死, 脈續者生.」

成無己-“少陰病에 下利, 脈微한 것은 寒極陰盛한 것으로 白通湯으로 復陽散寒해야한다. 服湯한 後에 利不止하고 脈逆無脈, 乾嘔煩한 것은 寒氣가 太甚하여 內에서 熱藥을 格拒하여 陽氣가 逆亂한 것으로 白通加豬膽汁湯으로 和解해야 한다....”⁹⁰⁾

醫宗金鑑-“少陰病에 下利, 脈微한 것은 白通湯을 주면 下利가 마땅히 그쳐야 하는데, 도리어 脈逆無脈하고, 乾嘔와 煩症이 加重된 것은 陰寒이 極盛한 것으로 陽氣가 格陽되어 欲脫하려는 豫候이다....”⁹¹⁾

【316條】

「少陰病, 二三日不已, 至四五日, 腹痛, 小便不利, 四肢沈重疼痛, 自下利者, 此爲有水氣, 其人或咳, 或小便利, 或下利, 或嘔者, 眞武湯主之.」

尤在經-“...臟寒하므로 腹痛하고, 寒勝하여 陽氣가 不行하므로 小便自利한 것이다. 水寒이 上搏하여 內外를 浸淫하면 四肢沈重疼痛하고, 自下利하는데 이는 모두 水氣가 寒氣를 乘하여 動하기 때문이다. 病人이 或咳, 或小便利, 或下利, 或嘔하는 것은 水寒之氣가 或驟하고, 或散하고 或上하기 때문이다.”⁹²⁾

【317條】

「少陰病, 下利清穀, 裏寒外熱, 手足厥逆, 脈微欲絕, 身反不惡寒, 其人面色赤, 或腹痛, 或乾嘔, 或咽痛, 或利止脈不出者, 通脈四逆湯主之.」

成無己-“下利清穀, 手足厥逆, 脈微欲絕한 것은 裏寒한 때문이고, 身熱不惡寒, 面色赤은 外熱한 때문이다. 이는 陰이 內에서 甚하여 陽이 外에서 格陽된 것이므로 通脈四逆湯으로 散陰通陽케한 것이다.”⁹³⁾

尤在經-“이는 少陰이 寒邪에 直中되어 陰盛格陽의 證狀이 된 것이다. 下利清穀, 脈微欲絶은 內에서 陰盛

한 것이고, 身熱不惡寒, 面色赤한 것은 外에서 格陽된 것으로 眞陽의 氣가 陰寒邪에 逼迫되어 所在한 곳에서 不安하여 外部로 遊散된 것이다. 그러므로 熱象이 顯著하나 實은 熱證이 아니다.”⁹⁴⁾

【319條】

「少陰病, 下利, 六七日, 咳而嘔渴, 心煩不得眠者, 猪苓湯主之.」

成無己-“下利不渴한 것은 裏寒한 것이다. 經에도 ‘自利不渴한 것은 太陰에 屬한 것이니 臟에 有寒하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지금은 下利하고 口渴하므로 裏寒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 心煩不得眠한 것으로는 挾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⁹⁵⁾

方中行-“下利는 眞實로 陰寒이 甚하여 水氣가 無制하기 때문이다. 六七日에 咳而嘔渴하고, 心煩不得眠하는 것은 水寒이 相搏해 蓄積되고 不行하여 內로 悶亂케하여 不寧하기 때문이다....”⁹⁶⁾

【324條】

「少陰病, 飲食入口則吐, 心中溫溫欲吐, 復不能吐, 始得之, 手足寒, 脈弦遲者, 此胸中實, 不可下也, 當吐之. 若隔上有寒飲, 乾嘔者, 不可吐也, 當溫之, 宜四逆湯.」

醫宗金鑑-“飲食이 入口한 卽, 吐하는 것은 胸中에 溫溫欲吐하나 實際로는 不能吐하고 惡心이 그치지 않는 것으로 이는 少陰의 寒虛吐가 아니라 胸中の 寒實로 因한 吐이다. 그러므로 吐가 있을 때에 脈이 弦遲한 것으로 弦한 것은 飲을, 遲한 것은 寒을 나타내는 것이다. 手足이 寒한 것도 胸中の 陽氣가 寒飲에 阻隔되어 四肢로 通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寒實이 在胸하면 마땅히 上越하고 下法을 使用해서는 안 된다. 萬若 膈上에 寒飲이 있는 것은 但只 聲音만 있고 出物함은 없는 것인데, 이는 少陰의 寒虛로 因한 飲으로 胸中の 寒實로 因한 吐가 아니다. 그러므로 吐法이 不可하고 마땅히 急溫해야 하니 四逆湯이나,

89. 傷寒貫注集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8, p.153.

90. 註解傷寒論 一中社 p.377.

91. 醫宗金鑑 訂正中景全書(上) 醫藥衛生出版社, 1978, pp.225-226.

92. 傷寒貫注集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8, p.150.

93. 註解傷寒論 一中社 p.380.

94. 傷寒貫注集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8, p.151.

95. 註解傷寒論 一中社 p.384.

96. 欽定四庫全書中 傷寒論條辨 p.81.

88. 註解傷寒論 一中社 pp.372-373.

理中湯에 丁香, 吳茱萸를 한 것을 使用해야 한다.”97)

【325條】

「少陰病, 下利, 脈微瀯, 嘔而汗出, 必數更衣, 反少者, 當溫其上, 灸之。」

2-6.厥陰病

【326條】

「厥陰之爲病, 消渴, 氣上撞心, 心中疼熱, 飢而不欲食, 食即吐蚘, 下之利不止。」

成無己-“傷寒六七日에 厥陰이 受病할 때에 經으로의 傳經이 끝나나면 마땅히 腑로 入하는데, 胃虛한데 客熱하게 되면 飢不欲食하게된다. 蚘蟲이 胃에 있으면 無食하면 動하고, 食臭를 맡으면 出하는데 得食吐蚘하는 것은 熱이 厥陰經에 있기 때문이다....”98)

尤在經-“...飢而不欲食하는 것은 木이 土를 攻擊하기 좋아하기 故로 胃虛하여 口食하여도 熱邪로 因해서 消殺할 수 없는 것이다. 食入即吐하는 것은 蚘蟲이 無食하면 動하고, 食臭를 맡으면 出하기 때문이다....”99)

柯韻伯-“蟲은 風으로 化生되는데 厥陰에 病이들면 蚘蟲이 生하는 것이다. 蚘蟲이 食臭를 맡으면 上膈하여 口를 따라 出하는 것이다.”100)

【338條】

「傷寒脈微而厥, 至七八日膚冷, 其人躁無暫安時者, 此爲臧厥, 非蚘厥也. 蚘厥者, 其人當吐蚘. 今病者靜, 而復時煩者, 此爲藏寒, 蚘上入其膈, 故煩, 須臾復止, 得食而嘔, 又煩者, 蚘聞食臭出, 其人常自吐蚘. 蚘厥者, 烏梅丸主之, 又主久利。」

【339條】

「傷寒熱少微厥, 指頭寒, 嘿嘿不欲食, 煩躁, 數日, 小便利, 色白者, 此餘熱也, 欲得食, 其病爲愈. 若厥而嘔, 胸脇煩滿者, 其後必便血。」

成無己-“...數日後에 小便色白한 것은 裏熱이 除去된 것으로 欲得食함은 胃氣가 이미 調和된 것으로 病이 나오려는 것이다. 厥陰의 脈은 挾胃貫膈, 布脇肋하므로 厥하며 嘔하는 것은 傳經된 熱邪가 裏部에서 더욱 甚해진 것이다....”101)

柯韻伯-“...萬若 病人이 비록 外熱이 있다고 해도 다시 厥逆이 있고, 嘔症으로 不能食하는 것은 來韓이 조금 甚한 것이요, 胸脇逆滿한 것은 內熱이 亦是 甚한 것이다....”102)

97. 醫宗金鑑 訂正中景全書(上) 醫藥衛生出版社, 1978, p.228.

【357條】

「傷寒六七日, 大下後, 寸脈沈而遲, 手足厥逆, 下部脈不至, 喉咽不利, 唾膿血, 泄利不止者, 爲難治, 麻黃升麻湯主之。」

【359條】

「傷寒本自寒下, 醫復吐下之, 寒格更逆吐下, 若食入口即吐, 乾薑黃連黃芩湯主之。」

【376條】

「嘔家有癰膿, 不可治嘔, 膿盡自愈。」

【377條】

「嘔而脈弱, 小便復利, 身有微熱, 見厥者, 難治, 四逆湯主之。」

醫宗金鑑-“厥陰病에 嘔하며 脈弱하면 大便이 利할 때가 많은데 지금 小便이 復利하는 것은 비록 身에 微熱이 있어도 厥冷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는 邪氣가 이미 上逆하고 下焦가 虛汗不固한 것으로 陰進陽退하는 象이다....”103)

【378條】

「乾嘔, 吐涎沫, 頭痛者, 吳茱萸湯主之。」

【379條】

「嘔而發熱者, 小柴胡湯主之。」

【380條】

「傷寒大吐大下之, 極虛, 復極汗者, 其人外氣怫鬱, 復與之水, 以發其汗, 因得噦. 所以然者, 胃中虛冷故也。」

【381條】

「傷寒噦而腹滿, 視其前後, 知何部不利, 利之即愈。」

3. 嘔吐의 區別.

3-1. 六經 別 嘔吐의 區分<表1> 六經別 嘔吐의 區分

98. 註解傷寒論 一中社 pp.387-388.

99. 傷寒貫注集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8, pp.159-160.

100. 傷寒來蘇集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8, p.173.

101. 註解傷寒論 一中社 p.395.

102. 傷寒來蘇集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8, p.179.

103. 醫宗金鑑 訂正中景全書(上) 醫藥衛生出版社, 1978, p.227.

<表1> 六經別 嘔吐의 區分

區分	細分	六經區分	條文番號	主要內容	處方	備考
嘔症	嘔	太陽病	17	酒客病, 不可與桂枝湯, 得之則嘔, 以酒家不喜甘故也.		
			33	太陽與 陽明合病, 不下利, 但嘔者, 葛根加半夏湯主之.	葛根加半夏湯	
			76	發汗後, 水藥不得入口爲逆, 若更發汗, 必吐下不止. 發汗吐下後, 虛煩不得眠, 若劇者, 必反覆顛倒, 心中懊憹, 梔子豉湯主之. 若少氣者, 梔子甘草豉湯主之. 若嘔者, 梔子生薑豉湯主之.	梔子生薑豉湯	
			97	血弱氣盡, 腰膝理開, 邪氣因入, 與正氣相搏, 結於脇下. 正邪分爭, 往來寒熱, 休作有時, 嘿嘿不欲飲食, 脇膈相連, 其痛必下, 邪高痛下, 故使嘔也, 小柴胡湯主之. 服柴胡湯已, 渴者屬陽明, 以法治之.	小柴胡湯	嘔가 膽熱에 의한 것
			98	得病六七日, 脈遲浮弱, 惡風寒, 手足溫, 醫二三下之, 不能食, 而脇下滿痛, 面目及身黃, 頸項強, 小便難者, 與柴胡證, 後必下重, 本渴, 飲水而嘔者, 柴胡不中與也, 食穀者噦.		柴胡湯을 사용할 수 없는 嘔證
			103	太陽病, 過經十餘日, 反二三下之, 後四五日, 柴胡證乃在者, 先與小柴胡, 嘔不止, 心下急, 鬱鬱微煩者, 爲未解也, 與大柴胡湯下之則愈.	大柴胡湯	半表半裏에서 完全히 入裏
			104	傷寒十三日不解, 胸脇滿而嘔, 日晡所發潮熱, 已而微利, 此本柴胡證, 下之以不得利, 今反利者, 知醫以丸藥下之, 此非其治也. 潮熱者實也, 先宜服小柴胡湯以解外, 後以柴胡加芒硝湯主之.	先小柴胡湯後柴胡加芒硝湯	少陽陽明同病
			110	太陽病二日, 反躁, 凡熨其背, 而大汗出, 大熱入胃, 胃中水竭, 躁煩, 必發譫語, 十餘日振慄自下利者, 此爲欲解也, 故其汗從腰以下不得汗, 欲小便不得, 反嘔, 欲失溲, 足下惡風, 大便硬, 小便當數, 而反不數及不多, 大便已, 頭卓然而痛, 其人足心必熱, 穀氣下流故也.		上盛下虛
			146	傷寒六七日, 發熱微惡寒, 支節煩疼, 微嘔, 心下支結, 外證未去者, 柴胡桂枝湯主之.	柴胡桂枝湯	
			149	傷寒五六日, 嘔而發熱者, 柴胡湯證具, 而以他藥下之, 柴胡證仍在者, 復與柴胡湯...	小柴胡湯	太陽에서 柴胡證으로 傳變
172	太陽與少陽合病, 自下利者, 與黃芩湯; 若嘔者, 黃芩加半夏湯主之.	黃芩加半夏生薑湯	太陽少陽合病			

區分	細分	六經區分	條文番號	主要內容	處方	備考		
嘔症	嘔	陽明病	185	本太陽初得病時, 發其汗, 汗先出不徹, 因轉屬陽明也. 傷寒發熱無汗, 嘔不能食, 而反汗出 濇濇然者, 是轉屬陽明也.		嘔證은 轉屬陽明한 豫候		
			197	陽明病, 反無汗, 而小便利, 二三日嘔而咳, 手足厥者, 必苦頭痛, 若不咳, 不嘔, 手足不厥者, 頭不痛.		中寒陽虛也, 水氣上逆		
			204	傷寒嘔多, 雖有陽明證, 不可攻之.		230條와 關聯		
			230	陽明病, 脇下硬滿, 不大便而嘔, 舌上白苔者, 可與小柴胡湯. 上焦得通, 津液得下, 胃氣因和, 身濇然汗出而解.	小柴胡湯	陽明과 少陽兼病		
		少陽病, 太陰病에는 나오지 않음						
		少陰病	316	少陰病, 二三日不已, 至四五日, 腹痛, 小便不利, 四肢沉重疼痛, 自下利者, 此爲有水氣, 其人或咳, 或小便利, 或下利, 或嘔者, 眞武湯主之.	眞武湯	腎陽衰微로 水氣不和함		
			319	少陰病, 下利, 六七日, 咳而嘔渴, 心煩不得眠者, 猪苓湯主之.	猪苓湯	水氣가 胃를 犯함		
		厥陰病	338	傷寒脈微而厥, 至七八日漚冷, 其人躁無暫安時者, 此爲臧厥, 非蚘厥也. 蚘厥者, 其人當吐蚘, 今病者靜, 而復時煩者, 此爲藏寒, 蚘上入其膈, 故煩, 須臾復止, 得食而嘔, 又煩者, 蚘聞食臭出, 其人常自吐蚘. 蚘厥者, 烏梅丸主之, 又主久利.	烏梅丸			
			339	傷寒熱少微厥, 指頭寒, 嘿嘿不欲食, 煩躁, 數日, 小便利, 色白者, 此餘熱也, 欲得食, 其病爲愈. 若厥而嘔, 胸脇煩滿者, 其後必便血.		陽熱內鬱하여 木火가 胃를 犯함		
			376	蠱脹, 不可治嘔, 膿盡自愈.				
377	嘔而脈弱, 小便復利, 身有微熱, 見厥者, 難治, 四逆湯主之.		四逆湯	陰盛陽虛中氣虛				
379	嘔而發熱者, 小柴胡湯主之.	小柴胡湯	149條와 重複					

<表1> 六經別 嘔吐의 區分

區分	細分	六經區分	條文番號	主要內容	處方	備考		
嘔症	乾嘔	太陽病	12	“太陽中風，陽浮而陰弱。陽浮者，熱自發，陰弱者，汗自出；奮奮惡寒，漸漸惡風，翕翕發熱，鼻鳴乾嘔者，桂枝湯主之。”	桂枝湯			
			40	傷寒表不解，心下有水氣，乾嘔，發熱而咳，或渴，或利，或噎，或小便不利，小腹滿，或喘者，小青龍湯主之。	小青龍湯			
			158	傷寒中風，醫反下之，其人下利日數十行，穀不化，腹中雷鳴，心下痞硬而滿，乾嘔心煩不得安，醫見心下痞，爲病不盡，復下之，其痞益甚，此非熱結，但以胃中虛，客氣上逆，故使硬也，甘草瀉心湯主之。	甘草瀉心湯	誤下하여 胃中虛로 胃氣上逆됨.		
		陽明病에는 나오지 않음						
			少陽病	266	本太陽病不解，轉入少陽者，脇下硬滿，乾嘔不能食，往來寒熱，尚未吐下，脈沈緊者，與小柴胡湯。	小柴胡湯	太陽에서 少陽으로 傳入함	
		太陰病에는 나오지 않음						
			少陰病	315	少陰病，下利，脈微者，與白通湯，利不止，厥逆無脈，乾嘔煩者，白通加豬膽汁湯主之。服湯脈暴出者死，脈續者生。	白通加豬膽汁湯		
				317	少陰病，下利清穀，裏寒外熱，手足厥逆，脈微欲絕，身反不惡寒，其人面色赤，或腹痛，或乾嘔，或咽痛，或利止脈不出者，通脈四逆湯主之。	通脈四逆湯	外로 陰盛格陽한 경우, 病勢가 四逆湯보다 重함	
				324	少陰病，飲食入口則吐，心中溫溫欲吐，復不能吐，始得之，手足寒，脈弦遲者，此胸中實，不可下也，當吐之。若膈上有寒飲，乾嘔者，不可吐也，當溫之，宜四逆湯。	四逆湯	虛寒氣가 胃로 逆上하여 乾嘔한 것.	
			厥陰病	378	乾嘔，吐涎沫，頭痛者，吳茱萸湯主之。	吳茱萸湯	肝胃虛寒으로 濁陰 上逆..	

區分	細分	六經區分	條文番號	主要內容	處方	備考		
嘔症	嘔逆	太陽病	3	“太陽病，或已發熱，或未發熱，必惡寒，體痛嘔逆，脈陰陽俱緊者，名爲傷寒。”				
			152	太陽中風，下利嘔逆，表解者乃可攻之。其人熱熱汗出，發作有時，頭痛，心下痞硬滿，引脇下痛，乾嘔短氣，汗出不惡寒者，此表解裏未和也，十棗湯主之。	十棗湯	區域은 外感에 懸飲裏症이 兼한 것. 乾嘔는 水邪 翻胃하여 胃氣上逆한 것.		
		陽明病, 少陽病, 太陰病, 少陰病, 厥陰病에는 나오지 않음						
			欲嘔	太陽病	140	太陽病，下之，其脈促，不結胸者，此爲欲解也。脈浮者，必結胸。脈緊者，必咽痛。脈弦者，必兩脇拘急。脈細數者，頭痛不止。脈沈緊者，必欲嘔。脈沈滑者，協熱利。脈浮滑者，必下血。		正氣가 陽明의 寒邪를 格拒한 것.
		陽明病		243	穀欲嘔，屬陽明也。吳茱萸湯主之。得湯反劇得，屬上焦也。		陽明胃氣虛寒證	
		少陽病, 太陰病, 少陰病, 厥陰病에는 나오지 않음						
			喜嘔	太陽病	96	傷寒五六日，中風，往來寒熱，胸脇苦滿，噦噦不欲飲食，心煩喜嘔，或胸中煩而不嘔，或渴，或腹中痛，或脇下痞硬，或心下悸，小便不利，或不渴，身有微熱，或咳者，小柴胡湯主之。	小柴胡湯	邪氣가 將次 入裏하려는 豫候
		陽明病, 少陽病, 太陰病, 少陰病, 厥陰病에는 나오지 않음						
			不嘔	太陽病	23	“太陽病，得之八九日，如瘧狀，發熱惡寒，熱多寒少，其人不嘔，清便欲自可，一日二三度發，脈微緩者，爲欲愈也。……”		病邪가 太陽에서 少陽으로 不入함
					61	下之後，復發汗，晝日煩躁不得眠，夜而安靜，不嘔不渴，無表證，脈沈微，身無大熱者，乾薑附子湯主之。		病邪가 太陽에서 少陽으로 不入함
	147	傷寒五六日，已發汗而復下之，胸脇滿微結，小便不利，渴而不嘔，但頭汗出，往來寒熱，心煩者，此爲未解也，柴胡桂枝乾薑湯主之。			太陽에서 入裏한 裏熱이 陽明에 損傷안슴			
	陽明病	197		，反無汗，而小便利，二三日嘔而咳，手足厥者，必苦頭痛。若不咳，不嘔，手足不厥者，頭不痛。		中寒陽虛해도 水寒이 上逆하지 않았음		
	244	“太陽病，寸緩關浮尺弱，其人發熱汗出，復惡寒，不嘔，但心下痞者，此以醫下之也。如其不下者，病因不惡寒而渴者，此轉屬陽明也。……”			太陽病을 誤下하였지만 陽明에 完全히 들어 가지 않음			
	少陽病	270	傷寒三日，三陽爲盡，三陰當受邪，其人反能食而不嘔，此爲三陰不受邪也。		胃氣가 調和되어서 三陰으로 入하지 않은 것			
太陰病, 少陰病, 厥陰病에는 나오지 않음								

〈表1〉 六經別 嘔吐의 區分

區分	細分	六經區分	條文番號	主要內容	處方	備考	
吐	太陽病		19	“凡服桂枝湯吐者，其後必吐膿血也。”			
			74	中風發熱，六七日不解而煩，有表裏證，渴欲飲水，水入則吐者，名爲水逆，五苓散主之。	五苓散	水逆證	
			76	發汗後，水藥不得入口爲逆，若更發汗，必吐下不止。發汗吐下後，虛煩不得眠，若劇者，必反覆顛倒，心中懊憹，梔子豉湯主之。若少氣者，梔子甘草豉湯主之。若嘔者，梔子生薑豉湯主之。	梔子豉湯		
			122	病人脈數，數爲熱，當消穀引食，而反吐者，此以發汗，令陽氣微，腸氣虛，脈乃數也。數爲客熱，不能消穀，以胃中虛冷，故吐也。		胃中虛冷으로 인한 吐證	
	陽明病，少陽病에는 나오지 않음						
	太陰病		273	太陰之爲病，腹滿而吐，食不下，自利益甚，時腹自痛，若下之，必胸下結硬。			太陰病提綱
			283	病人脈陰陽俱緊，反汗出者，亡陽也，此屬少陰，法當咽痛而復吐利。		少陰病 亡陽의 脈證	
	少陰病		292	少陰病，吐利，手足不逆冷，反發熱者，不死，脈不至者，灸少陰七壯。	灸少陰七壯	手足이 溫하면 險證이 아님.	
			296	少陰病，吐利躁煩，四逆者死。		少陰病 死證. 陽氣衰竭한 症候.	
			309	少陰病，吐利，手足厥冷，煩躁欲死者，吳茱萸湯主之。	吳茱萸湯	陽虛陰盛, 正邪極爭	
	厥陰病		359	傷寒本自寒下，醫復吐下之，寒格更逆吐下，若食入口即吐，乾薑黃連芩芍湯主之。	乾薑黃連芩芍湯	中氣虛寒한데 五治로 上熱下寒이 甚해짐.	
			378	乾嘔，吐涎沫，頭痛者，吳茱萸湯主之。	吳茱萸湯	肝胃虛寒으로 濁陰上逆.	

區分	細分	六經區分	條文番號	主要內容	處方	備考	
吐	太陽病		29	“傷寒，脈浮，自汗出，小便數，心煩，微惡寒，脚攣急，反與桂枝湯欲攻其表，此誤也。得之便厥，咽中乾，煩躁吐逆者，作甘草乾薑湯與之，以復其陽；若厥愈足溫者，更作芍藥甘草湯與之，其脚即伸。”	甘草乾薑湯		
			陽明病，少陽病，太陰病，少陰病，厥陰病에는 나오지 않음				
	太陽病		4	“傷寒一日，太陽受之，脈若靜者，爲不傳；煩躁吐，若躁煩，脈數急者，爲傳也。”			太陽傳變豫候와 관련
			123	太陽病，過經十餘日，心下溫欲吐，而胸中痛，大便反澀，腹微滿，鬱鬱微煩，先此時自極吐下者，與調胃承氣湯。若不爾者，不可與。但欲嘔，胸中痛，微瀆者，此非柴胡湯證，以嘔，故知極吐下也。	調胃承氣湯	鬱鬱欲吐가 大吐下로 發生	
	陽明病，少陽病，太陰病에는 나오지 않음						
	少陰病		282	少陰病，欲吐不吐，心煩但欲寐，五六日，自利而渴者，屬少陰也，虛故引水自救；若小便色白者，少陰病形悉具，小便白者，以下焦虛有寒，不能制水，故令色白也。			少陰陽虛의 嘔吐. 寒邪가 上逆.
			厥陰病에는 나오지 않음				
	太陽病		89	病人有寒，復發汗，胃中冷，必吐蚘。			胃中冷으로 因함
			陽明病，少陽病，太陰病，少陰病에는 나오지 않음				
	厥陰病		326	厥陰之爲病，消渴，氣上撞心，心中疼熱，飢而不欲食，食即吐蚘，下之利不止。			上熱下寒, 胃寒하여 吐蚘.
			338	傷寒脈微而厥，至七八日膚冷，其人躁無暫安時者，此爲藏厥，非蚘厥也。蚘厥者，其人當吐蚘，今病者靜，而復時煩者，此爲藏寒，蚘上入其膈，故煩，須臾復止，得食而嘔，又煩者，蚘聞食臭出，其人常自吐蚘。蚘厥者，烏梅丸主之，又主久利。	烏梅丸	蛔厥에만 吐蚘證이 있음.	
	太陽病		19	“凡服桂枝湯吐者，其後必吐膿血也。”			
陽明病，少陽病，太陰病，少陰病，厥陰病에는 나오지 않음							

區分	細分	六經區分	條文番號	主要內容	處方	備考
嘔吐症	嘔吐	太陽病	165	傷寒發熱，汗出不解，心中痞硬，嘔吐而下利者，大柴胡湯主之。	大柴胡湯	少陽에 陽明實證이 兼,
		陽明病, 少陽病, 太陰病, 少陰病, 厥陰病에는 나오지 않음				
嘔吐症	欲嘔吐	太陽病	173	傷寒，胸中有熱，胃中有邪氣，腹中痛，欲嘔吐者，黃連湯主之。	黃連湯	胸中, 胃에 熱로 因함.
		陽明病, 少陽病, 太陰病, 少陰病, 厥陰病에는 나오지 않음				
噎症	乾噎	太陽病	157	傷寒，汗出解之後，胃中不和，心下痞硬，乾噎食臭，膈下有水氣，腹中雷鳴下利者，生薑瀉心湯主之。	生薑瀉心湯	胃中의 不和로 因함.
		陽明病, 少陽病, 太陰病, 少陰病, 厥陰病에는 나오지 않음				
噎症	噎氣	太陽病	161	傷寒，發汗，若吐，若下，解後，心下痞硬，噎氣不除者，旋覆代赭湯主之。	旋覆代赭湯	過治로 濁氣不降, 飲邪上逆함.
		陽明病, 少陽病, 太陰病, 少陰病, 厥陰病에는 나오지 않음				
噎症	噎	太陽病	98	得病六七日，脈遲浮弱，惡風寒，手足溫，醫二三下之，不能食，而膈下滿痛，面目及身黃，頸項強，小便難者，與柴胡證，後必下重。本渴，飲水而嘔者，柴胡不中與也，食穀者噎。		渴飲水, 嘔吐는 水陰停滯로 小柴胡湯 使用不可
		陽明病	194	陽明病，不能食，攻其熱必噎，所以然者，胃中虛冷故也，以其人本虛，攻其熱必噎。		胃中虛冷.
			226	若胃中虛冷，不能食者，飲水則噎		偽證虛寒.
		少陽病, 太陰病, 少陰病에는 나오지 않음				
		厥陰病	380	傷寒大吐大下之，極虛，復極汗者，其人外氣拂鬱，復與之水，以發其汗，因得噎，所以然者，胃中虛冷故也。		胃中虛冷
	381	傷寒噎而腹滿，視其前後，知何部不利，利之即愈。		實證		
唾膿血症	唾膿血	太陽病, 陽明病, 少陽病, 太陰病, 少陰病에는 나오지 않음				
		厥陰病	357	傷寒六七日，大下後，寸脈沈而遲，手足厥逆，下部脈不至，喉咽不利，唾膿血，泄利不止者，為難治，麻黃升麻湯主之。	麻黃升麻湯	邪熱壅盛으로 因함.

3-2. 原因別 嘔吐의 區分

<表2> 原因別 嘔吐의 區分

條文番號	嘔吐區分	嘔吐의 原因別 區分						
		合病并病	邪氣內陷	陰陽不和	臟腑不和	邪氣內鬱	胃中不和	水飲內停
3	嘔逆		外寒迫胃	營衛不和			胃氣上逆	
4	欲吐		傳經豫候					
12	乾嘔			營衛不和			胃氣上逆	
17	嘔					濕熱內鬱		
19	吐膿血					濕熱內鬱		
29	吐逆			陽虛寒勝 陰陽相格				
33	嘔	太陽陽明合病						
40	乾嘔噎							水氣內停
74	吐							水逆證
76	吐, 嘔						胃氣虛弱	
89	吐蚘						胃中冷	
96	喜嘔		少陽內入					
97	嘔				肝胃不和膽熱			
98	嘔噎							水陰停滯
103	嘔不止		陽明內入					
104	嘔	少陽陽明合病						
110	嘔			上盛下虛, 陽氣上逆				

〈表2〉 原因別 嘔吐의 區分

122	吐						胃中冷	
123	吐, 嘔						誤吐傷胃	水氣上逆
140	欲求		寒邪內入					
146	微嘔		少陽內入					
149	嘔		少陽內入					
152	嘔逆, 乾嘔						胃氣上逆	懸飲內停
157	乾噫						胃中不和	
158	乾嘔						胃中虛 胃氣上逆	
161	噫氣						胃中虛	飲邪上逆
165	嘔吐	少陽陽明實證			膽胃鬱結	熱鬱氣滯		
172	嘔	太陽少陽合病						
173	欲嘔吐			上熱下寒		胸中胃中熱鬱		
185	嘔		轉屬陽明					
194	噦						胃中虛冷	
204	嘔多		少陽內入				胃中虛	
226	噦						胃中虛冷	

條文番號	嘔吐區分	嘔吐의 原因別 區分						
		合病并病 陽明少陽兼併	邪氣內陷	陰陽不和	臟腑不和	邪氣內鬱	胃中不和	水飲內停
230	嘔							
243	欲求						胃中寒	
266	乾嘔		太陽에서少陽으로					
273	吐			上逆不降	脾胃不和			
282	欲吐			少陰陽虛 寒邪上逆				
283	吐			少陰亡陽				
292	吐			少陰陽虛				
296	吐			陽氣衰竭				
300	欲吐			少陰虛寒				
309	吐			陰盛陽虛				
315	乾嘔			陰盛隔陽				
316	嘔			腎陽衰微				水氣不和
317	乾嘔			陰盛隔陽				
319	嘔			陰寒太甚				水氣犯胃
324	乾嘔							膈上寒飲
325	嘔			陰盛陽虛				
326	吐蚘			上熱下寒			胃中寒	

338	嘔, 吐蚘							
339	嘔				木火犯胃	陽熱內鬱		
357	唾膿血					邪熱壅盛		
359	吐			上熱下寒			中氣虛寒	
376	唾膿血					邪熱壅盛		
377	嘔			陰盛陽虛			中虛, 胃氣上逆	
378	乾嘔				肝胃虛寒			濁陰上逆
379	嘔		少陽內入					
380	噦						胃中虛寒	
381	噦					實證二便不通		

4. 嘔吐와 關聯된 處方分析.

嘔吐에 使用된 處方의 病因病機別 區分로 나누어

4-1. 嘔吐에 使用된 處方의 病因病機別 區分.

보면 다음과 같다.

<表3> 嘔吐에 使用된 處方의 病因病機 및 主要脈證

處方名	嘔吐에 使用된 處方의 病因病機 및 主要脈證		
	病因病機	治療原則	主要脈症
桂枝湯	表虛腠理不固, 邪入侵, 虛邪賊風避之有時, 營衛強	解肌發表, 滋陰和陽, 調和營衛	症狀: 發熱, 汗出惡風, 頭項強痛 脈象: 浮緩 (陽浮而陰弱)
柴胡桂枝湯	表邪未解, 邪入少陽	和解少陽, 發散太陽, 表裏雙解	症狀: 發熱微惡寒, 肢節煩痛, 微嘔, 心下支結 脈象: 弦而浮數
葛根加半夏湯	太陽陽明同感寒邪之合病	解外和中, 降逆止嘔	症狀: 發熱惡寒, 不下利而嘔 脈象: 浮大而數
小青龙湯	表有寒邪, 裏有水飲	解表散寒, 溫肺化飲, 表裏雙解	症狀: 惡寒, 發熱, 無汗, 頭項痛, 身痛, 乾嘔, 咳喘, 或渴, 或利, 或吐瀉, 或小便不利, 少腹滿 脈象: 浮大, 或浮緊
小柴胡湯	邪犯少陽, 半表半裏熱證	和解表裏	症狀: 寒熱往來, 心煩喜嘔, 默默不欲食, 胸脇苦滿爲主症, 渴, 咳, 心下悸, 腹中滿, 小便不利爲兼證 脈象: 弦細
大柴胡湯	少陽陽明并病, 少陽失和, 陽明熱結	外解少陽, 內瀉熱結 (表裏雙解)	症狀: 少陽嘔不止, 心下急, 鬱鬱微煩, 大便不下 脈象: 弦數有力
十棗湯	水飲停聚	攻逐逐飲	症狀: 微汗出, 有時頭痛, 心下痞硬引脇痛, 乾嘔氣短汗出不惡寒 脈象: 沈弦
調胃承氣湯	燥熱結實, 胃氣不和	瀉下燥實, 調和胃氣	症狀: 不惡寒但熱, 蒸蒸發熱, 汗出, 心煩, 腹脹滿, 不大便, 苔黃 脈象: 或滑或平
黃芩加半夏湯	少陽之熱下迫陽明伴嘔	和解表裏, 降逆止嘔	症狀: 下利腹痛, 身熱口苦, 惡心嘔吐, 舌紅 脈象: 沈弦
乾薑黃芩黃連人參湯	上熱下寒, 寒熱格拒	清上溫下, 辛開苦降	症狀: 食入即吐, 下利 脈象: 虛數
五苓散	水飲停蓄, 膀胱氣化不行, 水不能下輸, 津液不能上布	健脾滲濕, 化氣利水	症狀: 發熱頭痛, 煩渴或渴欲飲水, 水入則吐, 小便不利 脈象: 浮或浮數
猪苓湯	熱盛傷陰, 水熱互結于下焦	清熱利水, 育陰生津	症狀: 心煩不得眠, 渴欲飲水, 小便不利, 發熱, 舌紅, 苔水滑 脈象: 浮或浮數
柴胡加芒硝湯	少陽不和, 兼陽明實熱	和解少陽, 兼輕下裏實	症狀: 胸脇滿而嘔, 日晡所發潮熱, 微利 脈象: 沈弦有力
甘草瀉心湯	傷寒中風未解, 反復誤下, 脾胃氣虛已重	緩中扶陽, 消痞降逆	症狀: 下利日數十次, 完谷不化, 心下痞硬滿, 乾嘔, 心煩不安 脈象: 弦細無力
生薑瀉心湯	脾陽虛, 胃邪熱, 水飲停蓄	和胃降逆, 行水消痞	症狀: 心下痞硬, 脇下有水氣, 乾噦食臭, 腹中雷鳴下利 脈象: 弦細而軟
梔子豉湯	傷寒汗吐下或病後餘熱, 鬱結胸膈	清熱除煩	症狀: 虛煩不得眠, 心中懊憹, 胸中窒, 心中結痛, 舌苔黃 脈象: 數
梔子生薑豉湯	邪熱鬱結胸膈 (兼嘔)	清熱除煩, 散飲止嘔	症狀: 梔子豉湯證兼見嘔吐 脈象: 數
黃連湯	寒熱格拒于上下	清上溫下, 和胃降逆	症狀: 胸中煩熱, 時欲嘔吐, 腹痛, 舌尖紅, 苔黃白 脈象: 弦數或沈細
真武湯	腎陽衰微, 水氣內停	溫陽利水	症狀: 身熱, 自汗, 心下悸, 頭暈身顫動, 振振欲墜地, 小便不利或清長自利, 四肢沈重浮腫下利 脈象: 沈細或弦細, 沈微
四逆湯	脾胃陽虛, 陰寒內盛	溫運脾胃, 回陽救逆	症狀: 面色蒼, 但欲寐, 四肢厥逆, 下利清谷, 嘔吐, 無熱惡寒, 或大汗, 或有微熱, 小便清長, 舌質淡 脈象: 脈微細 (沈遲或沈微)
甘草乾薑湯	中焦陽虛, 脾弱肺寒	溫中散寒, 健脾化飲	症狀: 惡寒無熱, 手足厥冷, 咽中乾, 煩躁, 小便數, 咳嗽, 痰稀白沫 脈象: 浮數或沈微
白通加豬膽汁湯	陰寒太盛, 格陽于上	溫中升陽, 育陰清熱, 除煩止嘔	症狀: 下利不止厥逆, 乾嘔, 煩躁 脈象: 脈微, 或無脈
通脈四逆湯	陰寒內盛, 虛陽外越	溫裏通陽, 回陽通脈	症狀: 下利清穀, 裏寒外熱, 厥逆不惡寒, 面赤或乾嘔嘔痛 脈象: 脈微欲絕
吳茱萸湯	中焦虛寒, 肝邪挾胃濁上逆	鎮肝溫胃, 降逆止嘔	症狀: 乾嘔, 吐涎沫, 顛頂頭痛, 手足厥冷, 煩躁或下利 脈象: 沈弦
烏梅丸	胃熱腸寒, 寒熱錯雜, 正氣不足之蟄厥證	滋陰泄熱, 溫陽通降, 安蛔止痛	症狀: 腹痛時作, 煩悶嘔吐, 甚至吐蠅, 手足厥冷 脈象: 微
旋覆代赭湯	胃氣虛弱, 痰濁內阻	鎮肝和胃, 消痞除痰	症狀: 心下痞硬, 噯氣不除 脈象: 細澀無力
麻黃升麻湯	表邪內鬱, 氣機不伸, 上熱下寒, 陰陽不和	疏表清熱, 養陰健脾, 止泄	症狀: 咽喉不利, 唾膿血, 手足厥逆, 泄利不止 脈象: 寸脈沈遲, 下部脈不至

4-2 嘔吐에 使用된 處方과 이를 構成하는 本草 嘔吐에 使用된 處方과 이를 構成하는 本草의 用
 의 用量 量을 圖表로 整理하면 <表4>와 같다.

<表4>嘔吐에 使用된 處方과 이를 構成하는 本草의 用量

處方名	處方에 使用된 本草 藥物들과 用量																				備考												
	桂 枝	麻 黃	芍 藥	人 參	半 夏	黃 芩	黃 連	大 黃	柴 胡	葛 根	五 味 子	細 辛	枳 實	芒 硝	猪 苓	澤 瀉	茯 苓	滑 石	阿 膠	莞 花		甘 遂	大 戟	白 朮	附 子	甘 草	乾 薑	生 薑	大 棗				
桂枝湯	二 兩		三 兩																						三 兩 炙		三 兩	一 兩 二 枚					
柴胡桂枝湯	一 兩 半		二 兩 半	一 兩 半	二 合 半	一 兩 半			四 兩																	一 兩 炙	一 兩 半	二 兩	六 枚				
葛根加半夏湯	二 兩	三 兩	二 兩		半 升					四 兩																二 兩 炙	二 兩	二 兩	一 兩 二 枚				
小青龍湯	三 兩	三 兩	三 兩		半 升						半 升	三 兩														三 兩	三 兩						
小柴胡湯				三 兩	半 升	三 兩			半 斤																	三 兩 炙	三 兩	一 兩 二 枚	一 兩 二 枚				
大柴胡湯			三 兩		半 斤	三 兩		二 兩	半 斤					四 枚 炙														五 兩	一 兩 二 枚	一 兩 二 枚			
十棗湯																			各 等 分	各 等 分	各 等 分									一 兩 二 枚			
調胃承氣湯							四 兩							半 升											二 兩 炙	二 兩 炙							
黃芩加半夏湯			二 兩		半 升	三 兩																				二 兩 炙	二 兩 炙	一 兩 半	一 兩 二 枚	生薑或 三兩			
乾薑黃芩黃連 人參湯				三 兩		三 兩	三 兩																				三 兩						
五苓散	半 兩														一 兩 六 銖	一 兩 六 銖	一 兩 六 銖	一 兩 六 銖							一 兩 六 銖								
猪苓湯															一 兩	一 兩	一 兩	一 兩															
柴胡加芒硝湯				一 兩	二 十 銖	一 兩			二 兩 六 銖					二 兩												一 兩 炙		一 兩	四 枚	半夏本 來五枚			

處方名	處方에 사용된 本草 藥物들과 用量																	備考																		
	桂枝	麻黃	芍藥	人參	半夏	黃芩	黃連	大黃	黃栢	細辛	茯苓	梔子	香豉	葱白	豬膽汁	人尿	吳茱萸		烏梅	蜀椒	旋覆花	代赭石	升麻	當歸	知母	萎蕤	天門冬	石膏	白石	附子	甘草	乾薑	生薑	大棗		
甘草瀉心湯					半	三																														12枚
生薑瀉心湯					三	半																														12枚
梔子豉湯												14個	四合																							
梔子生薑豉湯												14個	四合																						五兩	
黃連湯	三兩				二兩	半		三兩																											12枚	
眞武湯											三兩																	二兩	一枚						三兩	
四逆湯																													一枚	生						
甘草乾薑湯																																				
白通加豬膽汁湯																																				
通脈四逆湯																																				
吳茱萸湯																																				
烏梅丸	六兩																																			
旋覆代赭湯																																				
麻黃升麻湯	六兩	二兩	六兩									六兩																								

嘔吐에 사용된 處方들을 構成하는 本草들의 種類와 사용된 回數를 綜合하여 圖表로 整理하면 <表5>와 같다.

法인 效能別 區分을 擇하였으며, 本草學¹⁰⁴⁾을 基準으로 하였다. 이는 嘔吐에 사용된 處方을 構成하는 本草들의 效能을 區分함으로써 實際적으로 嘔吐의 原因과 사용된 本草의 效能이 附合되는지를 알아보

4-3 處方에 사용된 本草 分類

處方에 사용된 本草의 區別은 가장 普遍的인 方

104. 본초학 영림사 1991

기 위한 것이다. 處方을 構成하는 本草들을 效能別로 區分하여 圖表로 整理하면 <表6>과 같다. 方證으로 提示된 嘔吐에 對한 專門的이고, 仔細한 研究가 없이 傷寒論에서 나타나는 嘔吐의 境遇 單純히

<表5>處方에 使用된 本草의 種類와 使用된 回數

處方에 使用된 本草의 種類와 使用된 回數																							
種類	桂枝	麻黃	芍藥	人蔘	半夏	黃芩	黃連	大黃	柴胡	黃柏	葛根	五味子	細辛	枳實	芒硝	猪苓	澤瀉	茯苓	滑石	阿膠	莞花	甘遂	大戟
計	8	3	7	9	11	9	5	2	4	1	1	1	2	1	2	2	1	4	2	1	1	1	1
種類	白朮	附子	知母	萎蕤	天門冬	石膏	梔子	香豉	葱白	豬膽汁	人尿	吳茱萸	烏梅	蜀椒	旋覆花	代赭石	升麻	當歸	甘草(生)	乾薑	生薑	大棗	
計	3	5	1	1	1	1	2	2	1	1	1	1	1	1	1	1	1	2	16(1)	11	12	13	

<表6>處方에 使用된 本草의 效能別 分類.

區分	細分	使用된 本草들	合計/%		使用된 回數에 對한 %		備考
解表藥	發散風寒藥	麻黃, 桂枝, 細辛, 生薑, 葱白	5	11.1	26	16.38	21.42
	發散風熱藥	葛根, 柴胡, 升麻, 香豉	4	8.88	8	5.04	
清熱藥	清熱瀉火藥	石膏, 知母, 梔子	3	6.66	4	2.5	11.95
	清熱燥濕藥	黃芩, 黃連, 黃柏	3	6.66	15	9.45	
瀉下藥	攻下藥	大黃, 芒硝	2	4.44	4	2.5	4.4
	峻下逐水藥	甘遂, 大戟, 莞花	3	6.66	3	1.9	
祛風濕藥		없음					
利水滲濕藥	利水退腫藥	茯苓, 猪苓, 澤瀉	3	6.66	7	4.4	5.66
	利尿通淋藥	滑石	1	2.22	2	1.26	
溫裏藥	溫裏藥	附子, 乾薑, 吳茱萸, 蜀椒	4	8.88	18	11.3	11.3
理氣藥	理氣藥	枳實	1	2.22	1	0.63	0.63
消食藥		없음					
驅蟲藥		없음					
止血藥		없음					
活血化瘀藥		없음					
化痰止咳平喘藥	溫化寒痰藥	半夏, 旋覆花	2	4.44	12	7.56	7.56
安神藥		없음					
平肝藥	平肝潛陽藥	代赭石	1	2.22	1	0.63	0.63
開竅藥		없음					
補益藥	補氣藥	人蔘, 白朮, 甘草, 大棗	4	8.88	41	25.89	33.45
	補血藥	當歸, 白芍藥, 阿膠	3	6.66	10	6.3	
	補陰藥	天門冬, 萎蕤	2	4.44	2	1.26	
收澀藥	止瀉藥	烏梅	1	2.22	1	0.63	1.26
	澀精縮尿止帶藥	五味子	1	2.22	1	0.63	
涌吐藥		없음					
外用藥		없음					
其外藥		人尿, 豬膽汁	2	4.44	2	1.26	1.26
合計			45個	100%	158回	100%	100%

III. 考 察

嘔吐는 傷寒論에서 汗·吐·下 三法과 寒·吐·下 三證과 關係되는 重要한 症狀에 屬한다. 그러나 後世로 갈수록 많은 醫家들이 嘔吐의 原因을 內傷에서 많이 다루었는데, 이는 相對的으로 傷寒論에서의

風寒嘔吐나 外感嘔吐로 간주하는 傾向이되었다. 張仲景은 嘔吐를 臨床的으로 仔細히 觀察하여 그 種類과 狀態에 따라서 乾嘔, 嘔逆, 嘔, 吐, 吐逆, 吐涎沫, 愞愞欲吐, 欲嘔 등으로 나누었으며, 또 韓醫學의 特徵인 辨證論治의 기틀을 마련한 傷寒論에서 嘔吐의 原因과 病症을 多樣한 症型으로 提示하였다. 105)

〈表7〉原因別 嘔吐의 區分 統計

對해서 特別한 境遇에 特別한 症狀을 選擇的으로 使

區分	嘔吐의 原因別 區分						
	合病并病	邪氣內陷	陰陽不和	臟腑不和	邪氣內鬱	胃中不和	水飲內停
計	5/78	11/78	20/78	5/78	8/78	19/78	10/78
總%	6.41	14.1	25.6	6.41	10.2	24.3	12.8

〈表8〉六經病에서 나타나는 嘔吐症의 回數 統計

區分		六經病에서 嘔吐症이 나타나는 回數						備考
		三陽病			三陰病			
		太陽病	陽明病	少陽病	太陰病	少陰病	厥陰病	
嘔症	嘔	11	4			2	5	
	乾嘔	3		1		3	1	
	嘔逆	2						
	欲嘔	1	1					
	喜嘔	1						
	不嘔	3	2	1				不嘔는 統計에서 除外
計		19/34	5/34	1/34		5/34	6/34	全體 34回
%		55.8	14.7	3		14.7	18	
吐症	吐	4			1	4	2	
	吐逆	1						
	欲吐	2				1		
	吐蚘	1					2	
	吐膿血	1						
計		9/19			1/19	5/19	4/19	全體 19回
%		47.3			5.3	26.3	21.0	
嘔吐症	嘔吐	1						
	欲嘔吐	1						
計		2/2						全體 2回
%		100						
噫症	乾噫	1						
	噫氣	1						
計		2/2						全體 2回
%		100						
噦症	噦	1	2				2	
	計	1/5	2/5				2/5	全體 5回
%		20	40				40	
唾症	唾膿血						1	
	計						1/1	全體 1回
%							100	
總計		32/63	7/63	1/63	1/63	10/63	13/63	總63回
總%		50.7	11.1	1.6	1.6	16	20.6	100%

張仲景은 傷寒論중에서 嘔吐의 各各의 症狀들을 嘔, 乾嘔, 嘔逆, 欲求, 喜嘔, 不嘔, 吐, 吐逆, 欲吐, 吐蚘, 吐膿血, 嘔吐, 欲嘔吐, 乾噫, 噫氣, 噦, 唾膿血 등으로 細密하게 區分하여 使用하였다. 이들 症狀들 中에 한 條文에서 두가지 症狀이 겹쳐서 나타나는 境遇는 거의 없었다. 이는 仲景이 이들 各各의 症狀을

用하였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嘔吐를 六經別로 區別하면 〈表1〉과 같이 整理이 된다. 이를 다시 六經病에서 嘔吐症이 나타나는 回數別로 整理하면 〈表8〉과 같다. 이를 보면 太陽病이 50.7%, 厥陰病이 20.6%, 少陰病이 16%, 陽明病이 11.1%, 少陽病, 太陰病이 각각 1.6%의 順으로 嘔吐증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太陽病의 境遇에는 모든 症狀이 나타나고, 陽明病은 嘔症과 噦症만이 나타나며, 少陽病은 嘔症만이 나타나며, 太陰病은 吐症만이 나타나고, 少

105. 安圭錫 外. 「東醫病理學會誌」 8卷 1993, pp.259-272.

陰病은 吐症(26.3%)이 嘔症(14.7%)보다 많이 나타나고, 厥陰病은 太陽病과 같이 거의 모든 症狀이 나타나지만 차지하는 比率은 太陽病보다 낮게 나타났다. 特히 不嘔의 症狀은 太陽病에서만 言及되었고 이는 모두 邪氣의 內陷이나, 傳經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意味로 使用되어졌다.

原因別로 嘔吐를 區分하면 <表2>와 같이 나타난다. 嘔吐의 原因中에서 가장 높은 比率을 차지하는 것은 陰陽不和, 胃中不和, 邪氣內陷, 水飲內停, 邪氣內鬱, 合病并病, 臟腑不和의 順이었으며, 이를 볼때에 傷寒論에서의 嘔吐症은 外感으로 因한 것이지만, 主로 邪氣가 이미 內陷되기 始作하거나, 또는 이미 內陷되어 陰陽, 臟腑의 機器가 紊亂될 때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表7>

傷寒論의 嘔吐症에 使用된 處方은<表2>에 整理되어 있는데 모두 27種이었으며, 이들을 <表1>에 따라 六經別로 整理하면, 太陽病篇에서 21回, 陽明病篇에서 1回, 少陽病篇에서 2回, 少陰病篇에서 6回, 厥陰病篇에서 8回 使用되었으며, 太陰病篇에서는 使用되지 않았다. 이는 嘔吐症이 太陽病에서 50.7%, 厥陰病에서 20.6%, 少陰病에서 16%, 陽明病에서 11.1%, 少陽病, 太陰病에서 各各 1.6%의 順으로 나타난 것과 一致하지는 않지만 相關性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處方에 使用된 本草들은 <表4> <表5> <表6>과 같이 整理할 수 있는데, 이를 보면 使用된 本草數는 總 45種이었으며, 이들 中 甘草, 大棗, 生薑, 乾薑, 半夏, 人蔘, 黃芩, 桂枝, 芍藥, 附子, 黃連 等の 順으로 多用되었다. 이들 各個 本草를 效能別로 무리지어 區分하면 <表6>과 같은데 이를 總 使用된 回數에 對한 %로 計算하면 補益藥(33.45%), 解表藥(21.42%), 清熱藥(11.95%), 溫裏藥(11.3%), 化痰止咳平喘藥(7.56%), 利水滲濕藥(5.66%), 瀉下藥(4.4%), 收澀藥과 其外藥(各1.26%), 理氣藥과 平肝藥(各0.63%)의 順으로 使用되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嘔吐의 原因이 陰陽不和, 胃中不和, 邪氣內陷, 水飲內停, 邪氣內鬱, 合病并病, 臟腑不和의 順으로 많았던 것과 많은 相關性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特別히 陰陽不和에서 腎陽虛衰나 陰盛陽虛가 많은 比率을 차지하는 것과 治療藥 中 補益藥, 그 中에서도 補氣藥이 많은 比率을 차지하는 것은 原因과 治療의 關係에서 注目할만 한 것이다. 그러나 大部分의 處方에서 常用되는 甘草, 大棗를 除外하면 補益藥이 차지하는 比率이 解表藥보다 조금 낮게 되는데, 傷寒論에서의 嘔吐는 어느정도 外感에 兼한 境遇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IV. 結 論

傷寒論 中 嘔吐와 關聯된 條文에, 諸家注를 綜合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傷寒嘔吐는 嘔, 乾嘔, 嘔逆, 欲求, 喜嘔, 不嘔, 吐, 吐逆, 欲吐, 吐蚘, 吐膿血, 嘔吐, 欲嘔吐, 乾噫, 噯氣, 噯, 唾膿血 等으로 多樣하게 表現되었다.

2. 傷寒嘔吐는 六經中 太陽病, 厥陰病, 少陰病, 陽明病, 少陽病, 太陰病編의 順으로 多樣하고, 頻도가 높게 나타났다.

3. 傷寒嘔吐의 原因은 陰陽不和, 胃中不和, 邪氣內陷, 水飲內停, 邪氣內鬱, 合病并病, 臟腑不和 等으로 나타났다.

5. 傷寒嘔吐의 治療處方은 小柴胡湯等 모두 27種이었다.

6. 傷寒嘔吐의 治療處方을 構成하는 本草는 모두 45種으로, 本草效能上 補氣藥, 發散風寒藥, 溫裏藥, 清熱燥濕藥, 溫化寒痰藥 等の 順으로 使用되어졌다.

앞으로 傷寒論의 湯證에 對한 研究가 繼續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思慮된다.

參考文獻

1. 金聖勳 外, 「東醫病理學」 翰林院 1994.
2. 文濬典 外, 「東醫病理學」 高文社 서울
3. 文濬典, 金聖勳外 傷寒論精解, 慶熙大學校出版局, 1996.
4. 李文瑞 外, 傷寒論湯證論治, 人民軍醫出版社, 1989.
5. 本草學, 永林社, 1991.
6. 成無己, 註解傷寒論 一中社.
7. 方中行, 欽定四庫全書中 傷寒論條辨.
8. 柯韻伯, 傷寒來蘇集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8.
9. 尤在經, 傷寒貫注集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8.
10. 喻嘉言, 喻嘉言醫學三書 江西人民出版社 1984.
11. 醫宗金鑑 訂正中景全書(上) 醫藥衛生出版社, 1978.
12. 陳修園, 傷寒論淺注 福建科學技術出版社, 1991.
13. 張隱庵, 傷寒論集註 新文豐出版公司, 中華民國74年.
14. 張馬合注 黃帝內經 臺北 臺聯國風出版社, 1977년.
15. 劉河間 劉河間傷寒三六書 서울 成輔社 1976.
16. 張子和 儒門事親 서울 古典韓醫學研究會 1975.
17. 正和奉勅 聖濟總錄 서울 翰成社 1977.
18. 朱丹溪 丹溪心法 臺北 五州出版社.
19. 張介賓 景岳全書 서울 杏林書院 1975.